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72호
4월 19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한국기독교한림원, 제7차 학술대회

“성경·복음 본질에 충실한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 건국과 경제적 번영을 이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조용목 목사
한국기독교한림원 이사장



정상은 목사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이사장 조용목 목사·원장 정상은 성결대 명예총장) 제7차 학술대회가 '선교 140주년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4월 4일(금)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과,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경과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신학 교육과 복음 사역,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의 사회로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 총장의 기도, 서정숙 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임성택 전 강서대 총장의 설교, 김승환 명지대 교수의 특송, 합심기도 순서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임성택 목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도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설교에서 “악한 세력과 세상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경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역이며 투쟁이자 한국기독교한림원의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성경적 복음신앙의 확산을 위해'

‘선교 140주년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안보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이승구 함신대학원대 석좌교수, 하주현 경희대의 대 교수, 목창균 전 서울신학대 총장, 이동주 전 아신대 교수, 김원평 한동대 석좌교수가 대표로 기도한 후, 한림원 이사장이신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드린 후 2부 학술대회가 안명준 평택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광희 평택대 명예교수의 기도, 한림원 정상은 원장(성결대 명예총장)의 개회사, 최대해 대신대 총장(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의 축사, 발제와 논평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상은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구원받은 믿음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여명의 빛으로 떠올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복음 전도와 함께 교육과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 근대화사회로 진입하고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6·25 전쟁과 그 이후 교회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보루 역할을 하며 국가 재건과 산업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비윤리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와 자유민주주의의체제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더욱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온전하게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이단 척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는 ‘한국 기독교선교와 대한민국의 형

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는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에서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로 진입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한반도가 중국·일본·러시아 3국의 침략 혹은 지배에서 벗어나 근대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자 서구 기독교 문명의 총화로서 개항 이후 오랫동안 기독교 선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관계를 형성해 왔기에 종교의 자유, 개인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평등,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현재 한반도는 문명사적으로 다시금 동북아 질서를 중화질서로 회귀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약 100년 전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 한국은 당시 미국과 연대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자주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화질서 회귀 시도에 맞서 자유민주체제와 연대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은선 안양대 명예교수가 ‘선교 140주년과 한국교회의 교육 분야에서의 역할’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교육과 의료를 시행하는 간접 방식의 복음전파를 병행했다. 기독교가 그동안 한국 교육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교육 받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건국되고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사학법이 개정되고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참된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 무장하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다음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되어 국가와 사회를 기독교적 가치관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여주 전 칼빈대 교대 교수(전 한국교회언론회 대표)는 ‘한국교회와 언론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교회와 언론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일반적, 보편적 영역에서 언론은 복음전파에 긍정적 역할보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의도적이든 불식간이든 복음사역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언론매체에서 좌편향, 역사 왜곡·편향 프로그램들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언론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사 사주나 간부가 아니라 노조에 가입된 기자들이다. 사람들은 교회가 잘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주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뉴스거리’로 보고 침소봉대한다. 기독교 안티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들도 많다.”

“...언론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교회가 언론 자원들을 길러내서 언론계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을 때 결집된 모습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론 수용자들이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언론도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분의 논문 발표와 박응규 아신대 명예교수의 종합논평 및 질의응답 순서에 이어서 학술위원장 이상규 백석대 석좌교수의 광고, 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 총장 오덕규 목사의 축도로 시종 성령충만했던 이날 제7차 학술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KAC)은 복음주의의 신앙과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과 취지로 창립되었다.

2022년 5월 20일(금)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21세기 상황과 한국교회,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제1차 학술대회와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차 학술대회를, 제3차 ‘젠더이

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 제4차 ‘한국기독교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주제로, 제5차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방향’, 제6차 ‘유신 진화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이어 고고 있다.

한국기독교한림원의 정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기독교한림원 정회원

김원평 박사(한동대 석좌교수), 김선배 박사(전 침신대 총장), 목창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박응규 박사(아신대 명예교수),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 안명준 박사(성서대 조빙교수),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 이동주 박사(전 아신대 교수),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이승구 박사(함신대 석좌교수) 이여주 박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 오덕규 박사(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총장), 정상은 박사(성결대 명예총장), 최대해 박사(대신대 총장), 황덕형 박사(서울신대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하주현 박사(경희대 의대교수,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74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추천 결의



교단 정책위원회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4월 8일(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모임을 갖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추천 의뢰한 74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에 대해 교단헌법에 의해 공식 추천절차를 밟아 총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시 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성경은 과연 무어라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자를 헌법규정에 의거 천거하기로 했다.

AG 아시아태평양신학대학원(APTS) 60회 졸업식

10개국 58명 졸업, 존 이스터 박사(미국 AGWM실행위원) 설교



심용재 목사
예하성 국제총회장

아시아태평양신학대학원(APTS)에서는 지난 3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필리핀 바기오에 소재한 동대학원에서 총12개국(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솔로몬아일랜드, 피지, 싱가포르, 미국 AGWM, AGWM아시아 총괄 지역장,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이사들(총회장)이 참석하여 학교현황 및 각종 보고사항들과 학교발전을 위한 주요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APTS학교 총장 Dr. Solomon의 학교발전과 확장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크게 공감했으며 학교 관계자들(총장, 학과장, 학생 과장, 재정과장, 센터장 GMC: Global Mission Center) 등의 업무보고

및 내년도 사업계획과 학사일정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또한 교수들과 이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그들의 고충과 계획들을 들었으며 총장이 부총장을 두자고 한 제의를 승인하여 부총장을 임명 승인 하기도 했다. 부총장에는 김준 박사(한국, 현 학과장)가 임명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기 2년의 이사회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이사장:샘 바우딘 목사(미국 AGWM) 부이사장:타모수 우찌무라 목사(일본) 총무:알렉스 목사(미국AGWM) 재무:심용재 목사(한국)가 선출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학교 기도타워 및 침례식장과 총장사택 헌당식이 있었다.

이날 치러진 60회 졸업식에서는 10개국 58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졸업식에서는 존 이스터 박사(미국 AGWM실행위원)가 말씀을 전했다.



한기총, 4, 7, 8 월에 ‘WEA 대책 포럼’ “사전투표 감시 강화” 대선 앞두고 시동

제36-2차 임원회에서 개최기로 결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4월, 7월과 8월 3차례 포럼을 갖고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4월 3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2차 임원회를 갖고 ‘WEA 대책 포럼’의 구체적인 일정과 그 취지를 확인하고 결의했다.

1차 포럼은 오는 4월 29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신학자들이 WEA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역사적 관점에서 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7, 8월에 각각 2·3차 포럼을 진행한다.

특히 2차 포럼에 대해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끝장토론이 될 것”이라고 했고, 3차 포럼은 장로교 교단들의 총회가 9월에 있기에 8월 중순 무렵에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WEA 서울총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 성명의로 반대 입



장을 밝혀 온 바 있다. WEA의 현 리더십들에 대한 진이슬람·종교다원주의 등 신학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WEA 내부 지도자들에 대한 신학적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한편, 임원회는 산불 피해 대책 및 지원의 건에 대해서

는 4월 7일(월)까지 모금하여 지원하기로 했고,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0일(주일) 오후 3시 순복음원당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다.

필리핀 스코키마운틴 위문 공연의 건은 7월 중순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고경환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모였던 쌀을 복지센터 등에 지원한 ‘사람의 쌀 나눔’ 보고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오는 6월 3일 치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공명선거전국연합’이 출범을 위한 전국적 조직화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1일(금) 서울 주사방교회에서 전국 대표자 모임을 갖고 공동대표단 구성과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공명선거전국연합은 앞서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선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정신을 계승했다.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위에 전국적 참여형 정치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공동대표인 홍호수 목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주요임 목사(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전한길 한국사 강사, 박성현 역사문화센터 대표, 천영식 펜앤드



마이크 대표 등이 참석해 단체의 방향성과 구체적 전략을 공유했다.

공동대표 홍호수 목사는 “지금 선관위와 현행 선거제도로는 결코 승리를 확인할 수 없다. 공명선거전국연합은 기도운동을 넘어 감시운동, 구조개선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했다.

실무적 청사진을 발표한 박성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조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서공회, 크로아티아·세르비아에 성경 기증

성경은 전도와 성경공부에 중심 5,310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지난 4월 4일(금)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유럽 동부에 있는 발칸반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두 나라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 각각 ‘크로아티아어 성경’ 1,400부, ‘세

르비아어 성경’ 5,310부를 보내는 기증 행사를 가졌다.

창조교회는 2015년부터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에 크로아티아·세르비아까지 8개 나라에 총 40,353부의 성경

을 후원했다.

이번 기증 행사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유럽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는 이들이 일어나는 참된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곳의 교회들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며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세르비아성서공회 베라 미틱 총무는 “여러분께서 보내시는 성경 한 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 도덕성 회복에 힘쓰기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4월 3일(목)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에서 드리고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1885년 헨리 G.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파종한지 금년으로 14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교회는 이번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신앙의 기본 다지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고 아울러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도덕성 회복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적 역할에 적극 나서는 한편,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정이 교회 미래의 버팀목임을 명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예정통합 총회장 김영길 목사의 사회로 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설교를, 예정합동 총회장 김중혁 목사가 축도를 맡아 한국선교 140주년 연합예배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정통합 김영길 총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사회자의 개회선언 후 예정합동 부총회장 김형곤 장로의 ‘선교 140주년의 감사와 다짐’, 예정통합 부총회장 윤한진 장로의 ‘나라와 민족의 미래’, 기감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박재혁 장로의 ‘다음세대 세우기’라는 제목의 특별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문다인 학생(새문안교회)이 성경봉독, 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의 설교, 예정합동 총회장 김중혁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빌 2:5-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튼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초기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땅에 왔다. 그들은 낮은 자리에서 백성과 동화돼 아픔과 슬픔을 나눴고, 이를 통해 참된 복음의 능력을 실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녀야 할 자세는 그들처럼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이라며 “절망과 소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문화통일연구원, 명사초청 예배

신동진 목사,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되어야”

(사)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사장 황인규 장로)는 지난 3월 25일(화) 오전 11시, 구로구 경인로 소재 동 연구원 강당에서 자문연구위원장 신동진 목사를 강사로 초빙해 예배

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박종운 장로의 사회로 연구원 부원장 신현만 목사의 대표기도, 고문 김근배 목사의 비전세미나, 간사 황

지연 집사의 성경봉독, 이인화 관사의 특송, 초청강사 신동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신동진 목사는 히 1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문화를 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간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문화창조의 능력과 종교성이라”라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총괄연구위원장 정일영 목사의 봉헌축복기도, 사무총장 박종운 장로의 광고, 연구원 고문 임화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CTS 저출생 대책 법령개정 설명회

전국의 교회를 노유자시설로 활용해 지역 섬길 수 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 이하 CTS)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 미래(이하 행복한미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초청 저출생 대책 위한 교회돌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4월 1일(화) 오전 11시 서울 노량진 CTS컨벤션홀에서 개

최했다.

이날 CTS 감경철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 모인 전국 기독교총연합회의 임원분들은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을 이끌실제적 리더”라며 “전국 종교시설의 노유자 돌봄 시설 활용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극

복을 이끌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 회장은 “최근 정치, 경제, 안보 등 혼란속에서도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 모인 전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계서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대회를 전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설명회는 1부 CTS 감경철 전무의 사회 아래 전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준영목사의 시작기도, CTS 이철 공동대표의사의 환영사,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총회장 오병열목사와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총회장 김종우목사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 개정 법령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영상보고 후 CTS 감경철 회장의 대회사로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국토를 무궁화 동산으로

양창부 총재, “무궁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심어야”

“나부터 평화의 꽃(무궁화) 한민족(한얼) 정신문화 회복에 동참하자!” 국민의 땅인 대한민국 국토를 무궁화(대한민국) 동산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지는 운동이 강력히 일어나고 있다.

무궁화심기범국민운동본부(총재 양창부 목사, 총괄전행위원장 소병두 장로)는 지난 4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소재 흥인지문 공원에서 ‘무궁화심기 전국투어 발대식’을 갖고 오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국토를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원장 소병두 장로 사회로 강말희 목사의 기도, 위원장 소병두 장로의 취지설명, 총재 양창부 목사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두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위탁 받은 땅에 평화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소나무는 천대시 하고 보기 좋은 관상수와 꽃 가꾸기 등으로 조성된 공원은 한민족 정신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온 국민(시민)들이 자기 집과 골목, 길가와 공원, 산과 들에 무궁화심기 범국민운동을 펼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될 때 한민족

정신(한얼)이 하나로 회복되어 남과 북이 화평을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총재 양창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학교 때 해방을 맞이하고 기뻐했으나 일본의 악랄함을 잊을 수 없다. 일본은 한국어 발성정 책을 폈다.”라며 일본의 만행을 설명했다.

교육법인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수료식

제1기생 최고위 지도자 및 명예박사 수여식

교육법인 국제마약경찰대학교(설립총장 홍성선 박사)는 지난 3월 28일(금) 오전 11시, 군산시 개정면 소재 동 대학교 강당에서

2025년도 수료식 및 제1기생 최고위 지도자과정 UNPU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서 IDPU 제1기생 수료자로

피종진·김종남·원팔연 목사 등 104명이, 방동규·정해림·손동현·박현갑·안현순 목사 등이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수료식 감사예배는 IDPU 사무총장 문병을 박사의 사회로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이사장 채광명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장 민병우 박사의 성경봉독, 명예총장 피종진 박사의 녹 10:30-3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1기생 수료생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은 설립총장 홍성선 박사가 수료생과 명예박사들에게 각각 수료증과 학위를 수여했다.



■ 생명의 말씀 ■



김양인 목사

• 전주은혜와진리교회
• 예하성 전임 총회장

오늘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참 행복에 관해서 말씀해 드림으로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적인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구나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여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기분이 울적할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다시금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양심이 괴롭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스스로 죄책에서 놓여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해방시키실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죄의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해방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

유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 무슨 재앙을 만날지는 염려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므로 불안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풀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혼란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무익한 일에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요 6:29)이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큰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자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행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된 것이 행복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을 때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 할 때 송도님들의

수고는 주안에서 헛되지 않으며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성경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후사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차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이 공중으로 들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역으로 되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시 33:12)하신 대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즉 이 시간 말씀해 드린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들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날 교회와 대한민국의 위기와 위기는 값싼 복음으로 대체하여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희석한 기독교인에 대한 경종이다. 우리는 140년 전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값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현해야 한다.



사 부부와 함께 기도회를 갖고, 4시간 정도 걸리는 논쏘분교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논쏘분교회도 반부아 교회처럼 토질로 인해 교회 외벽의 페인트가 계속 벗겨져서 타일을 붙이기로 결정을 하고, 타일과 부엌의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싱크대와 바닥용 타일과 블록과 시멘트를 구입해 주고, 안전을 위해 울타리 자재와 페인트를 사주고 내려왔습니다. 곧 울타리 공사가 시작될 텐데 직접 공사를 위해 수고할 두 교회 목회자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부아교회 지붕과 천정함판 교체와 진입로 도로포장과 풋살 축구장과 놀이기구 설치 외에 남은 비용으로 논쏘분교회까지 울타리 설치와 부엌 개선 공사까지 알뜰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해주신 춘천교회 서광범, 임명남 집사 부부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부부 새해 모임(수련회) 매년 진행되는 새해맞이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파티아에서 열렸습니다.

12명의 목회자 부부와 아이들 5명이 참석을 하여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누자 전도사 부부는 피치 못할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17명의 목회자와 자녀들은 지방 시골 목회현장에서 지내다가 파티아의 아름다운 바다와 음식과 저녁 모임(집

동정

한국신학아카데미 학술세미나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김균진 교수) 2025년 봄학기 해안 이장식 교수 기념 학술세미나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무실에서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구원관’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판술을 맞이한 정일웅 교수(전 총신대 총장)가 ‘구약 율법의 구원관:심계명의 목적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선종 교수(한세대)가 논찬했다.

WEA참석·지지 금지, 합동 함복



예장 합동 함복노회가 지난 4월 7일 서울 양천구 동야교회 (담임 강창중 목사)에서 ‘제145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총회 목회자들이 참석·지지·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총회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9월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에서 WEA 서울총회 참여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어하우스학회 심포지엄



제10회 바이어하우스학회(회장 이동주 교수) 학술 심포지엄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관에서 ‘향후 북한교회 설립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통일과 북한 선교를 집중 탐구하고 있는 바이어하우스학회에서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탈북민 이범립 목사(열방성교회)가 ‘북한에 세워져야 할 교회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진화론의 오류에 대해 설명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지난 4월 12일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성산폴로키움을 진행했다. 류현도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과학주의와 진화론의 오류에 대해 설명했다. 우주의 자연발생설 등을 지적하며 인본주의에 매몰된 세계관 수정을 요구했다.

1월 26일에는 큰 누님과 매형이 칠순을 맞이하여 조카들이 여행 일정을 잡아 저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달 후원과 기도해 주시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2월 21일에는 대한항공 신우회 권락희 자매와 만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 안에 유익한 대화를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2월 24일-26일에는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춘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김유관, 주남희 권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의료선교사로 지내시는데 귀국하던 길에 잠시 들러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제목 1. 방콕안디옥교회를 비롯한 7개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2. 반부아와 논쏘분교회 남은 울타리 공사를 위해 3. 방콕안디옥교회 천정과 교회 후면 빈터에 지반 침하로 주저앉아 벽이 갈라지고 빗물이 새는 부엌을 철거하고 다시 주방과 식당과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도의 식사 공간이 없어서 예배 후 장의자를 밀어내고 식탁을 설치한 후 식사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저희 부부와 세 자녀들의 건강과 주신 주은이의 직장생활과 선기의 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해 5. 태국 선교동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김학봉 서머시 선교사 드림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 우리 땅에는 140년 전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푸시려는 은총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조선)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고, 온갖 압제와 착취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던 나라였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권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 선교했던 것과 같은 섭리로 이교

사여,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지게 인도하신 것이다.

복음은 양반(兩班)처럼 가만히 앉아서 상민(常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 엄청난 생명의 역사와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영혼 구원이 이뤄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만들어지고, 복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영혼의 자유, 인권 신장, 노예 해방, 남녀 평등, 인간의 존엄성, 학업의 기회, 국제 사역, 정치와 사회 제도의 변화, 화합의 장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세워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이며, 열매이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보다 크거나, 복음의 능력보다 더한 것은 단연코 없다. 무신론자이며, 역사학자인 톰 홀랜드(Tom Holland)는 ‘현대 문화의 모든 선한 것은 문자 그대로 모두 다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인정한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며 변증가인 존 렌녹스(John Lennox)는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미신같은 기독교를 믿느냐’는 빈정거림에 ‘그럼, 나에게 기독교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 4,000년 동안, 우상과 토tem과 사마니즘과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였다.

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는 전제주의(專制主義) 국가였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함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인권이 보장되는 복음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

선교지에서 온 편지

태국선교동역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3월 말이 되면서 빠른 우기의 시작임을 알리듯 어제와 오늘 시원하게 비가 내려 뜨거운 대지의 열기를 식혀주고, 초목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방콕안디옥교회 이모저모

1월 5일 새해 첫 주 예배에는 성찬식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5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참석했던 ‘장씨이’라는 50대 후반 남성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건축업자로 이전부터 교회의 크고 작은 공사에 함께 했던 분이고,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형님 내외가 태국에 오시면서 가져다주신 만도국을 새해 첫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의미 있고 훈훈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방콕안디옥교회 강단을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원주목매 새동네교회(이예원 목사)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선물로 준비한 헌금을 모아 보내주셔서 강단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첫인상을 주는 입구 계단이 내려앉아 파손되어 보기도 좋지 않았던 부분을 수리하고, 예배 실도 페인트칠을 하고, 예배 공간 상단에 설치된 창틀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얼룩졌던 커튼과 나무 창틀을 철거하고 새 창틀을 달았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비용을 보내주신 새동네교회 이예원 목사님과 성도님(주일학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강단을 새롭게 만들면서 휘장 뒷부분은 재사용이 불가했는데 교회 옆 건물에 사는 ‘쌍엽’ 성도가 커튼가게를 하는 분인데 재는 기부를 하셔서 휘장 뒷부분과 새롭게 만든 강단 앞부분까지 예쁘게 커튼을 설치하게 되었고, 강단 위에 카펫까지 기부해 해주셨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교회가 이사를 했을 때는 쌍엽 성도가 시끄럽다고 짜증도 내고, 저를 불러서 주의(혼계)도 주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성도가 되어 주일 아침마다 식사당반을 자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만큼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풍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교회의 행정 간사로 임명을 받아 충성스럽게 저희 부부를 돕는 신실한 자매입니다.

탐마셋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와 지금은 쾰라롱크대학 병원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온라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도 저희를 대신하여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땀”은 40대의 싱글남이고, 방콕안디옥교회 및 집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박스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술에 많이 빠져서 중독 상태까지 갔던 형제인데 얼마 전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심방을 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몸도 많이 좋아지고, 퇴원이후 지금까지 매주 예배와 수요일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부아교회와 논쏘분교회 울타리 공사 반부아교회는 풋살 경기장 설치 후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롬 FC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고, 야간 경기까지 할 수 있기에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직 잔디가 올라오지 않아 먼지가 나는 구장이지만 지역 관공사에서 물 뿌리는 차가 물을 뿌려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비롯한 교회 3면은 울타리가 없어서 동네의 개들이 축구장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구장 보호가 되지 않아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울타리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9시간 소요되는 우분에 올라가서 솜뎃 목사부부와 썸 목사 부부를 만나서 울타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주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에는 반부아교회에서 완펜사모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솜뎃 목사부부와 썸 목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4월 3일(목) 순복음엘림교회(부회장 배영례 목사)에서 제65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정순 목사(은혜의복음교회)의 사회, 부회장 배영례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마 13:1-9 말씀을 본문으로 '씨 뿌리는 비유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기 2년 동안 임원들과 회원들의 협력으로 기쁨으로 회장직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의도와 뜻을 좇아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지방회로 화합과 부흥을 이루어 나가자며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임회장 조갑수 목사(순복음은혜교회), 교단과 총회, 산하지방회와 모든 교회를 위



해 직전회장 조은주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 헌금기도에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순복음새샘물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전임회장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의는 회장 김영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회원점명과 전 회의록낭독에 이어 각 부 보고사항을 통과시켰고, 전임회장 최정식 선거관리위원장의 진행으로 제65차 지방회장 배영례 목사, 총무 김정순 목

사, 서기 조은주 목사,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가 회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선임되었다.

신임회장 배영례 목사의 인사가 있었으며, 65차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신임 임원단에 맡기고 신임회장 배영례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회원들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자리를 옮겨 순복음엘림교회가 섬기는 점심식사와 차를 마시며 사랑을 듬뿍 나누는 교제와 행복감으로 가득 채우고 귀한 시간을 함께한 후 목양지로 향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갈 것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4월 7일(월)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나라와 정지지도자들을 위해, 교단과 교회를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한 후 정기지방회 회무를 처리했다.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윤혜영 목사의 기도, 회계 조은혜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고후 3:6-10 말씀을 본문으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율법주의의 거짓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얻게 될 큰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 영광 가운데 살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직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재무 서미곤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

자의 광고, 전임 교단 서기 정영진 목사(부기총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정기지방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임원들은 모두 유임하기로 결의했다.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 부회장 윤혜영 목사, 총무 김태주 목사, 서기 홍찬일 목사, 재무 서미곤 목사, 회계 조은혜 목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홍종학 목사)는 지난

3월 31일(월) 꿈이있는교회(담임 김훈배 목사)에서 제41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훈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바울 목사(정

음 은혜와진리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전숙희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홍종학 목사(부안순복음교회)의 눅 7:36-48 말씀을 본문으로 '그를 보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홍종학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새 임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바울 목사(정음 은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양희철 목사(장복순복음교회), 총무 김훈배 목사(꿈이있는교회), 재무·회계 전숙희 목사(은혜와사랑교회)를 선출했다.

모든 회무를 마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다음 달 교단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더니 승리하는 전쟁의 전략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3월 31일(월) 한우리교회(담임 김진석 목사)

에서 34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사 7:19-23 말씀을 본문으로 '기드온의 승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드온에게 칼이 없었지만 300명으로 적을 물리쳤다. 애초에 기드온에게는 전략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더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전쟁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전임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지방회 회무처리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신 임원진은 회장 김은수 목사 부회장 신희성 목사 서기 성기찬 목사 회계 황용식 목사 재무 김진희 목사를 선임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온 목사)는 지난 4월 1일(화) 오전 11시 남원중앙교회(정종승 목사 사무)에서 제41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남원중앙교회 박지훈 목사의 찬양인도와 통성기도 후 지방회 총무 김희수 목사(익산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광호 목사(함라순복음교회)의 기도, 전임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표재욱 목사는 행 7:54-60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테반 집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자"라고 말했다.



말씀을 마치고 남원중앙교회와 나라와 민족, 총회와 지방회를 위해 기도 한 후 전임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는 회장 김상온 목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의 인도로 회원점명과 보고 사항과 안건토의 후 임원진은 모두 유임했다.

정기지방회를 마치고 한성식으로 점심을 먹고 남원 솔바람길로 이동하여 산책, 남원시립미술관 관람 후 성도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빵과 차로 담소와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추어탕과 켄 텃블러를 선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의 목양지로 떠났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안재봉 목사)는 지난 4월 6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비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제74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위원을 선출하는 한편 지난 회기(제73차)동안 헌신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더 쟁과' 이어 합창단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 회계 김경순 목사의 기도, 서기 윤진철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안재봉 목사의 설교, 재무 이동물 목사의 헌금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안재봉 목사는 요 3:8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충만한 자는 모든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며,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의 길에서 유혹이 생길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지방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2025년 신임위원을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최은규 목사의 진행으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중연 목사, 부회장 김병호 목사, 총무 전하세 목사, 서기 윤진철 목사, 재무 이동물 목사, 회계 김경순 목사가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순복음비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4월 7일(월) 순복음하늘빛교회(임경영 부회장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임경영 목사의 찬양 인도,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 부회장 김남순 목사의 대표기도, 김기인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기인 목사는 '선택받은 자의 실수'(창 9:22~27)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노아의 가나안 저주 실수를 예를 들면서 우리들도 묵회하면서 실수했을 것이다. 노아의 실수와 다를 바 없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흡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며 나아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 자신도



변화되어 사람들을 잘 이끌어나간다. 주의 종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았던 누가와 같이 복을 전하는 데에는 어디든지 가자. 노아를 통해 선택받은 자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경기남서지방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고 권면하였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재무 오용득 목사의 헌금 기도와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지방회에서는 신 임원 선출(전원 유임), 안건 토의 후 순복음하늘빛교회에서 섬겨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2025 남원지역 회복을 위한 With 찬양콘서트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남원중앙교회 지역교회와 더불어 남원 사랑의광장에서



남원중앙교회 담임 정종승 목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남원중앙교회(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담임 정종승 목사)가 창립 73주년을 맞아 남원시기독교연합회(회장 이윤순 목사)와 함께 2025 남원지역 회복을 위한 위드 찬양콘서트(With Praise Concert)를 3월 29일(토) 오후4시 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드 찬양콘서트는 CTS전북방송, 전북CBS, GOODTV 호남본부, 전북FBC 극동방송, 기아대책 호남본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남원기독교청소년협회(CYA), 한국어

린이전도협회 남원지회, 남원마마클럽, 조이코리아선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진행되었다.

이번 위드 찬양콘서트의 개최 목적은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라는 주제로, 남원지역의 영적 회복과 다음세대를 회복시키는 매개체,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했다.

남원중앙교회는 2022년부터 남원지역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비전세대 성경충만 찬양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올해 9회를 맞이하여 남원의 다음세대, 지역과 교회를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외부에서 대형 위드 찬양콘서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찬양은 남원중앙교회 출신 청년연합회가 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노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등에서 남원으로 와서 섬겼다. 남원 사랑의 광장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은혜의 메시지가 가득 찼다. 지역 성도들과 청소년들 약 6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위드 찬양콘서트 준비위원회에서는 음료 차량과 포토 부스 운영과 선물을 준비해 찬양과 함께 즐



기는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1부 찬양의 은혜 시간에는, 이재호 전도사의 개회선언과 이부옥 장로(세움학교 위원장)의 기도 후 남원중앙교회 청년연합회의 은혜로운 찬양인도 후 조이코리아 여름, 겨울 청소년 복음캠프 CCD대회에서 입상한 남원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SG 워십팀의 열정적인 워십이 있었다.

2부 말씀의 은혜 시간에는, 다음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강은도 목사(동탄 더푸른교회)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중심으로 '참된 찬양이란?'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 후 정종승 목사(남원시기독교연합회 청소년연합위원장, 남원중앙교회)는 찬양하며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 남원의 영적부흥과 다음세대 회복을 위하여 기도인도를 하였다.

이번 위드 찬양콘서트를 총괄한 정종승목사는 인사말에서 "2025 남원지역 회복을 위한 위드 찬양콘서트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위드 찬양콘서트를 통해 지역 교회의 영적인 연합과 다음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 후 남원시기독교연합회장 이윤순 목사(식정은혜교회)의 축도로 2025 남원지역 회복을 위한 위드 찬양콘서트를 마쳤다.

한편 남원중앙교회는 다음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는 공동체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세미나, 지역 어르신 사랑 나눔, 남원시 사랑의 연탄 나눔, 남원시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 다음세대, 부모, 교사와 함께하는 비전세대 찬양집회, 기아대책과 함께 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긴급구호 선교, 월드비전과 함께 한 비전예배 및 기브런 6K 후원금 전달, 인도네시아 빈민촌희망학교 교사, 필리핀 현지 사역자 초청 한국 비전트립, 남원YWCA, 굿네이버스, 남원중앙교회 부설 좋은열매 도서관, 사랑나눔센터와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남원중앙교회 선교비전은 전성도가 함께 하는 중보기도 선교,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협력선교,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비전선교, 하나되어 함께하는 동역선교이며,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지 다음세대 83명을 섬기고, 성도들이 드리는 선교예배 선교헌금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단기선교를 통하여 협력선교를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 등).

내 지식,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으로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성규 목사)는 지난 4월 10일(목) 오전 11시 순복음 생명나무교회(김성규 목사 시무)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국가와 정치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서범근 목사의 찬양인도 후 총무 이나건 목사의 사회로 시작, 서기 김연자 목사의 대표기도, 권영욱 목사의 특송,지방회장 김성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5:37-39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은 예수를 증언한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에 대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조



명한다. 마 1:21, 눅 2:11, 요 1:23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내 지식, 생각, 계획은 사망의 생각이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삶이 영생을 얻는 길이므로

거짓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자"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회계 고에스터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회장에 예수이름교회 김진원 목사를 선출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 마귀의 간계를 물리쳐야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4월 8일(화) 비전순복음교회(김진현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나라를 위해, 교단과 교회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정기지방회 회무를 처리했다.

강신홍 목사의 찬송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의 사회로 정세창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진현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4:1-11 말씀을 본문으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욕과 탐욕과 명예욕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이는 모두 마귀가 가져다주는 것으로 이런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곤 한다. 일찍이 아담도 먹는 것으로 유혹해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게 하였다. 마지막은 명예욕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란 천하만국의 영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항상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해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는 중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 서성영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와 몸이 불편한 목회자를 위한 기도회를 가진 후, 김

은숙 목사의 헌금기도와 광고 후에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 김효신 목사의 인도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여 안건들을 처리한 후 신임지방회장에 김남수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이어 부회장에 서경오, 김진현 목사, 총무 김진태 목사, 서기 김미연 목사, 회계 오승희 목사, 재무 정세창 목사를 선출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애학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애학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http://gd.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경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아이비리그 등 세계 최정상급 대학 합격자 배출

글로벌선진학교...다크머스대학, 시카고대학, 존스홉킨스대학, 시드니대학 등

해마다 세계 우수대학 진학으로 높은 진학성고를 거두고 있는 글로벌선진학교가 2024년~2025년도 대학입시 결과에서도 우수한 대학 진학결과를 기록해 이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예년에 비해 아이비리그 등 세계 최정상급 대학 합격자가 더 늘었다. 유에스 뉴스 랭킹과 큐에스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글로벌선진학교 학생들이 상위 랭킹 학교로 진학하는 동시에 상당액의 장학금을 약속 받고 진학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대표적 최상위권 대학 합격자를 보면 아이비리그 다크머스대학 미국 10위권 대학의 시카고대학, 존스홉킨스대학, 맥길대학, 시드니대학 등과 아시아권 대학으로는 세계 최정상급에 속하며 세계 10위권 대학인 홍콩 대학 홍콩 과학기술대학 등에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강 혁신대학 1위인 마네트바 대학에 10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 입시 성과는 음성, 문경, 미국, 세종 각 캠퍼스의 특성에 맞도록 글로벌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결과로 보여 진다. 음성, 문경, 미국 캠퍼스 학생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약속 받은 장학금 총액수는 4월 3일 현재 한화로 약 70억 원에 달하며 4월 말까지 주요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국별 합격 대학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100



여 개 대학 이상 유럽권 5개국 10여 개 대학 이상 아시아 오세아니아권 5개국 10여 개 대학 국내 20여 개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졸업생들은 국내 및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라 북미대학에 비하여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유럽 아시아권 대학으로 예년에 비하여 상당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은 현지 국가에서 최고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들이며 주로 농생명과학, 의료, 보건, 엔지니어, 관광 등의 전공으로 상당한 장학금을 약속 받고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문경 캠퍼스는 4년 전부터 생명과학 아이티 AI 디자인 스포츠 등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 영역에 기반하는 전문 트랙과정을 운영해 온 결과 마네트바 대학 합격 등 탁월한 입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올해의 경우 세계 최고의 디자인 예술 관련 대학

에 거액의 장학금을 약속 받고 다수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다.

2025년 국내 대학 진학 현황은 대표적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와 각 교단 신학대학 등과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글로벌 특화교육을 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다수 진학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 각 캠퍼스는 2025학년도 가을 학기 학생모집을 위해 문경 4월 19일(토), 음성 26일(토), 세종 5월 17일(토) 오후 1시부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5월 중 서울 및 수도권, 대전, 천안 중부권, 대구, 부산영남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의 (043)871-7050~2, (054)559-7050~2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업무협약

‘웰다잉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위해 공동 노력키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지난 4월 8일(화) (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천모임(공동대표 홍양희)과 ‘웰다잉(Well-Dying)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상담 및 교육 활동을 함께 전개키로 했다. 특히 양 측은 웰다잉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며,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및 사회공헌활동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 및 기타 연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생명을 나누는 일은 삶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이가 생명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실천모임 홍양희 공동대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라면서, “마지막 결정에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이 더해져 더 뜻깊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가든그로브 고교생 방문단 통역 지원

성결대학교, 안양시와 함께 글로벌 교류프로그램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김상식) 영어영문학과가 안양시와 협력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가든그로브시(Garden Grove, California) 고교생 방문단을 위한 통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성결대 학생들은 방문단과 함께하며 다양한 통역

및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5년 성결대 영어영문학과와 안양시가 맺은 실무 협약에 따라 진행된 온 프로그램으로 성결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에게 실전 통역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살롱나비/산불피해 이재민들과

전국 후 최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함께 하자

지난 3월 21일 경북 의성군 야산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일주일 동안 영남 북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다.

산림청은 3월 30일 오후 마지막 남은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의 불길을 잡아내어 주불 진압에 성공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2만여 명과 사상자 69명(30명 사망, 39명 상해자)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다. 이재민은 3만7천여 명에 달했다. 몇 년 전 강원도 고성과 삼척 등에서 발화된 산불로 문화재와 울창한 숲들을 태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그 상처가 채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초대형 산불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화마가 지나간 곳곳의 산림과 마을들은 숲딩이가 되었다. 산불로 소실된 숲이 회복되는 시간이 30년 이상 걸린다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은 결국 역대급으로 커졌다. 무려 7개 시군을 넘나드는 초대형 산불로 먼저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고 주왕산 국립공원과 지리산 천왕봉 정상까지 위협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했다. 전국적으로 울창한 숲들이 있는 우리나라의 산림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대형 산불의 위험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산림청 당국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 방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는 연구와 장비 도입을 신속하게 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의성 산불은 일주일 만에 서울시 면적 80%에 가까운 산림을 화마로 태워 버렸고 이재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국회와 정부, 여야는 이제 정쟁을 멈추고 추경예산과 예비비 확충으로 이재민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조상 대대로 고향 산전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들에게는 작은 도움과 지원이라도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사랑의 실천으로 화마를 극복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함께하자. 살롱나비는 산불 피해 가족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

1. 산림이 많은 강원도, 영남도에 소방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고 매년 일어나는 산불에 대비하여 초기진화하도록 해야 한다.

최초 발화된 의성군 야산 성묘객에게서 시작된 산불은 초기 진화에 실패하였다. 초기 산불 당시에 태풍급의 바람으로 소방기관에서는 적절한 대처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산불 진압에 필요한 장비와 발화지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초기 진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우리나라에는 산불감시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지적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60세라고 한다. 단기 일자리로 모집하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되고 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근무형태를 무기계약직을 바꾸어 미국처럼 전문성직업군으로 바꾸는 것이 요정된다. 산불 피해를 자주 겪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 방위군에 소방 전담팀을 꾸려 대기한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에는 블랙호크나 치누크 헬

아는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었던 교훈을 삼아 정부에서는 소방헬기 도입을 위하여 예산을 책정했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헬기 구입 등 방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무산되었다. 산불 피해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예산삭감을 강행한 야당은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70% 이상으로 산불에 취약하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야가 합의하여 책정하라.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 책정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출하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후 변화에 맞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할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고정식 항공기 도입을 서둘러라.

국회와 정부, 여야는 이제 정쟁을 멈추고 추경예산과

예비비 확충으로 이재민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작은 도움과 지원이라도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사랑의 실천으로 화마를 극복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함께하자.

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쓴다고 한다.

2.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동해안 끝자락 영덕군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집계가 어려운 정도의 피해는 장기적인 행정부의 도움이 요구된다. 이재민들은 집과 농토의 소실로 삶의 자리 전부를 잃어버렸다. 가족사진도 그 무엇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 나와 생명을 구했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이는 집 앞에서, 도로에서, 집 앞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영덕군의 자랑인 해맞이 공원에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갔다. 갑자기 닥친 화오리 화마에 바다로 피신했는데, 고깃배도 소실되었다. 그 주변의 이름다운 숲과 휴식처 다수를 태웠다.

3. 재난 방지 예방에 관한 정부의 요청을 묵살한 야당의 예산 대폭삭감으로 소방헬기 구입이 결국 무산이 되었다. 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방헬기는 60여 대에 이른다. 그런데 2년 전에도 소방헬기의 부품난과 노후화가 지적되었다. 대비는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꼴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작동하는 것들은 5,000리터 미만의 물을 싣고 물을 투하하는 것들에 불과하다. 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최첨단 항공기를 도입하여 1만 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조속히 교체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더 큰 대형화 산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초기에 진압하는 밤과 낮에도 비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 도입이 요구된다.

5. 지역별 산림의 수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불에 강한 나무들로 교체하는 연구를 하여 대형 산불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라.

산림 전문가에 의하면 영남지역(의성

군의 침엽수 비율 51.4%, 안동시의 침엽수 비율은 52.9%)에 다수 수종이 소나무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송진이 있어 쉽게 불에 타고 빨리 번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24배나 오래 탄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형 산불의 주범은 산림청이라는 말이 있다. 산림청이 소나무 위주의 조림 정책(침엽수 36.9%, 활엽수 31.8%)으로 숲을 가꾸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침엽수에서 활엽수를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식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수종을 연구 분석하여 조속한 시기에 획기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그리고 간벌(間伐) 작업도 중요하다고 한다. 산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벌리는 작업도 시행되어야 한다. 바람에 의한 불꽃 방향에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 산청의 경우 나무와 수풀이 얹혀 있어 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문화재가 인근에 있거나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간벌로 나무사이 간격을 띄

한 대처 측면에서 임도는 필수 불가결하다.

7.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주변 방재시설 시스템을 확충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천년 고찰과 조선시대의 서원 등 국립공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많은 손실을 보았다. 그렇다면 문화재 시설을 둘러싼 지역에 방재 시설 시스템을 적절하게 설치한다면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실천에 옮기기를 당부한다.

8. 농어촌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구형 핸드폰으로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를 제 때 받지 못하여 더욱 인명 피해를 입었다.

농어촌 인구의 다수가 60세 이상이다. 그렇다보니 거동이 불편하고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이분들은 불편함이 있다. 일상 일

소각이었다. 최근 경북 의성 산불도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밭이나 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대형 산불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숲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불이 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년 봄철에는 산불 경계를 생활화해야 한다.

10.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화재 진압을 위해 힘쓴 소방공무원들과 일반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자.

이번 대형산불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험한 산악지역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와 함께 10월 이상의 장기적인 산불로 인하여 소방대원들의 체력을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그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응원을 해야 하겠다. 불과 사투(死鬪)를 벌인 소방대원과 구조대원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선행을 홍보하고 포상하자.

11. 한국교회에는 건국 이후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이재민들을 신속하게 돕도록하고, 산불 진화에 힘쓴 소방대원과 구조대원의 선행을 홍보하고 포상하자.

영남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산 밑 뿐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변에 있는 다수 교회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교회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그들은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다. 교단별로 선교단체들이 신속하게 발 벗고 나섰다. 살롱나비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봉사회 등이 이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것들을 파악하여 사랑의 손길을 실천하고자 한다. 국내외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국 후 최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심한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5년 4월 7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세계 105개 언어로 성서 번역

세계성서공회연합회…61억 명이 사용

2024년, 전 세계 5억 8천만 명이 사용하는 105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74개의 언어로 처음 성서가 번역되었으며, 4억 8천만 명은 새로운 번역 또는 개정판 및 해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6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성경전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언어들 가운데 성서가 일부분만이라도 번역된 언어는 52%에 달하지만, 48%의 언어들은 여전히 성서가 번역되지 않았다.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 상당수는 소규모 공동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더크 게버스(Dirk Gevers) 총무는 “성서공회들이 2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끌어 온 세계 성서 번역 운동을 통해 2024년에 6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국어로 성서를 보급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라며 “성서공회의 핵심 사명은 성경

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언어적 다양성 또한 보존되고 풍성해지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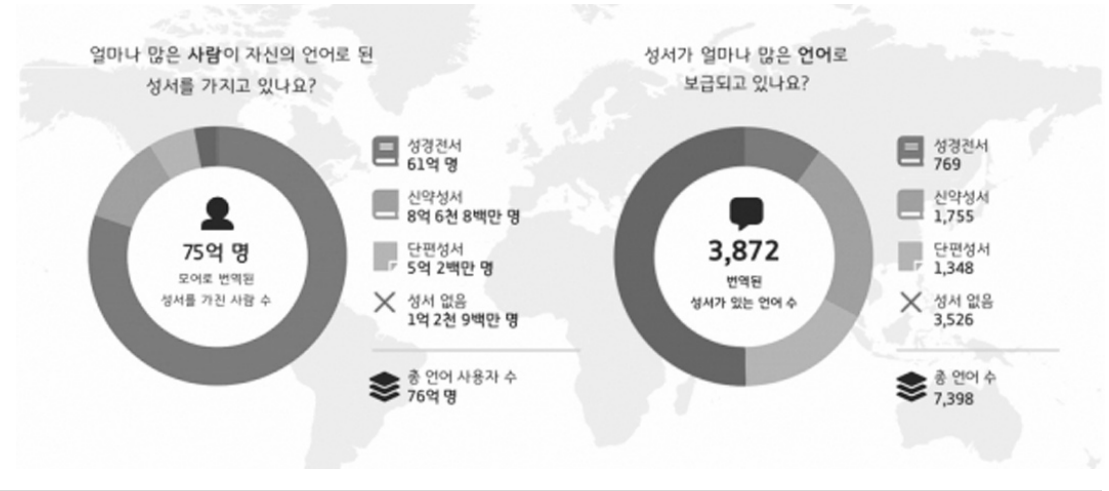
2024년 말 기준, 총 7,398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6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신약성서는 1,755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34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모두 합치면 3,872개 언어 성경이다.

반대로 3,526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이 진행 중이다.

전 세계 61억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8억 6천 8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5억 2백만 명이다.

하지만 1억 2천 9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가량은 아직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요청

2,000만 원 성금전달 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학부모 단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차학연, 대표 김광규 외)이 최근 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 대표 김지연)에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요청하며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차학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설립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은 생명 존중 운동, 바른 성가치관 운동 등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한가협과 협력하여 기독교 대안학

교에 성경적 성교육 도서를 기증하는 등 교육과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후원에 대해 차학연 김주성 공동대표는 “오늘날 사회는 마약중독 문제로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약 예방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으로 감겨진 청소년이 약 1,500명에 달하며, 그 암수 범 죄까지 고려하면 약 4만 5천 명의 청소년이 신규 마약중독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에 학부모들의 뜻을 모아 한가협 마약 예방 강사들이 학교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교회의 전도불씨 살리자…신록에 붙여

청산의 신록 앞산을 적시는데 천상의 향기에 취한 산새소리에 웅달샘마저 화답하네.

아, 그리운 하늘의 기쁨이여 생명의 신비여라. 지혜로운 등불 준비함이여 순결의 신부되리라. 순결의 신부되리라.

신록의 지평언덕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은 어둠을 흠쳐듯이 시간의 진실은 어둠의 가면을 벗기리라.

아, 찬란한 천국열쇠 이 곳에 주님의 몸 세우셨네. 흑암의 풍랑이여, 예수의 빛 앞에 네 잠잠 하라. 주께서 명하셨다.

교회여, 생명이여 온 누리 깊고 높푸른 하늘의 영광. 그리운 영혼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 축복의 전당되소서.

아, 복된 주의 몸이시여 거룩한 주의 임재 넘치소서. 주의 감동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진리의 전당이 되소서. 진리의 전당이 되소서.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牧사는 교회마다 전도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가족세트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붙게 하소서. 가족세트전도를 통하여 크게 영광받으소서. 받으소서.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 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정관, 단순 서류 아닌 교회의 철학 담아야”

미래목회포럼, ‘모범적인 교회정관’ 주제로 프레스센터서 포럼 개최

한국교회의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은 지난 4월 10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범적인 교회정관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교회 정관의 본질과 실천적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황덕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관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공동 규범이자, 외부 사회와의 연결고리”라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목회 철학이 반영된 ‘건강한 정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 원로목사)가 “어떻게 만드는 것보다 ‘왜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정관의 존재 이유와 신학적 의미를 고찰했다. 이어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목사)는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해당 교회가 채택한 정관의 조항 구성과 제정 과정을 공유하며 실천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건영 목사는 “왜 교회정관이 필요한가” “어떻게 교회정관을 만들 것인가보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물음으로 발제를 시작하며,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점차 관계 중심의 공동체에 서 역할 중심의 조직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했 다.

이장호 감독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국가와 국민만 생각”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의 이장호 감독이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과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공과 과를 공정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 4월 9일(수)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약간의 과도 언급되었다면 (영화)가 더 객관화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공을 중심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현재 정치를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의 권력에 대한 이익이나 욕망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감독은 “정치 쓰레기 같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모범만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또 이번 영화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역사를 다루었다”며 “분열과 대립이 심했던 해방정국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데 하나님ی 건국의 기적, 그 다음에 6.25전쟁의 기적, 박정희 대통령의 기적을 이뤄주신 걸 생각하면 지금 이 혼란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신대로 정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현)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참으로 멋진 크리스천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나디아 무라드와 공동수상)인 '드니 무쾌계'의 소식입니다. 언론은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부인과 의사로 20년간 3만여 명의 여성들을 치료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내전 와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신체까지 훼손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모두 황폐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술로 치료한 의사 드니 무쾌계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심방하던 일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웨덴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으므로 선진국에서 편히 살 수도 있었으나 전쟁으로 황폐한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귀국한 이래 성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치료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은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크리스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 강진과 해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140여 명의 승객을 구조한 크리스천 조종사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객기 조종사의 이름은 '리코스타 마렐라'인데 자신은 성령의 소리에 귀기

울며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시간을 앞당겨서 비행기를 이륙시킴으로써 승객들을 죽음에서 건져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행기 이륙이 30초만 늦었어도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조종사 마음 속에 공항을 빨리 떠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서둘러 공항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승무원들에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결국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3분 일찍 공항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강진이 발생했으며 거대한 해일이 공항으로 몰려오는 곳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지진과 해일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난 것은 다음 공항에 도착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참으로 멋진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그리고 멋진 두 분의 신앙인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들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하고,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 107:19-20)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죄사함의 기쁨

죄 사함 받은 기쁨 어디서 누릴건가!

세상은 그런 기쁨 알지 못 한다.

마음 속 전쟁터 언제나 피투성이

죄를 지어 죄인인가? 죄인이라 죄를 짓나?

오래 전 에덴동산 선악과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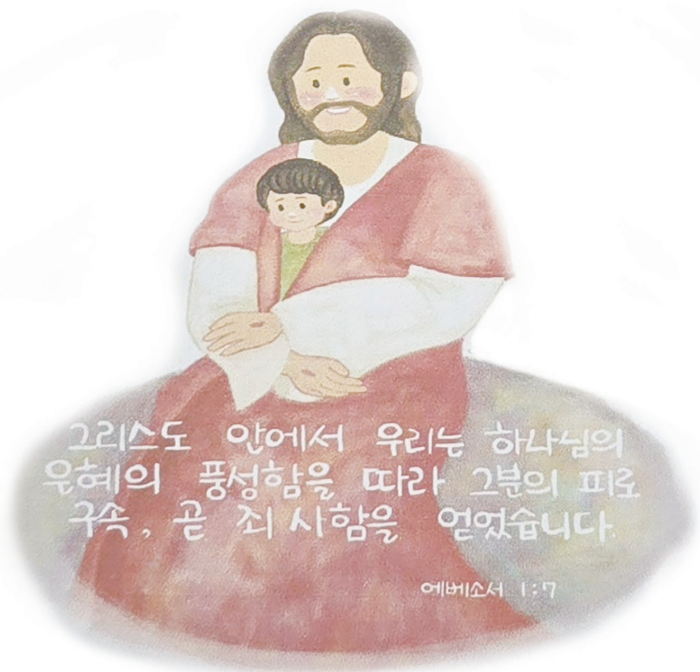
불순종 죄로 인해 죄인의 삶 사는구나.

세상의 모든 영혼 죄악 중에 출생하니

죄로 물든 그 마음 누구에게 닦 할건가!

보혈 능력 힘입어 허물 사함 받고서야

전쟁시대 막 내리고 주를 찬양하는도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
마음 속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지금은 평화의 시절이다.

사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이 한국은 상상 불가의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무슨 뜻이고 하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전과가 4개나 되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야당 대표가 되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 그가 탄핵 소추를 지휘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그 빈자리를 임시변통으로 매우던 총리 손발을 묶고 총리를 이은 대법장제 몰아내겠다고 큰소리를 치니 어떻게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매우 정상치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현실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탄핵 반대 집회 숫자가 창성 숫자 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헌법재판소는 8대0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원이 아니다. 정치적 법원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심판했던 탄핵 인용과 기각 이유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판관들은 국가 현실 위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 8인이 각자 내린 판단은 판사 인생을 결산하는 묘비명처럼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검검의 경찰 버스들이 헌법재판소를 지켜주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지켜주고 하무는 것은 전원 일치가 아니라 심판 이유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내린 각자의 심판 이유서가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안타까운 일들이, 이해 못할 일들이,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외신들의 보도 때문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겪어보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세계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대세인 국제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갈수록 점점 왜소해지는 분위기다. '한 시대의 막-幕-'이 닫히고 있으나 다음 시대의 막은 오르지 않은 세계는 위험하다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지난달 27일

발언은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전 세계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는 긴밀한 관계였다. 자유시장 경제의 미국과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캐나다는 체제는 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특수한 나라였다. 미국의 남쪽 멕시코와는 다르게 수천 km에 달하는 국경선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관계였다.

그런데 그런 두 나라 관계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미국과 세계 모든 나라의 관계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되고 말았다. 캐나다만 그럴까? 힘이 있는 나라는 책임 의식이 없고 책임 의식을 느끼는 나라는 힘이 없던 불균형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대 전쟁과 대 공황이었다. 미국과 캐나다만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진 게 아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성기가 됐던 유럽도 지금 진퇴양난이다.

트럼프의 요구를 무작정 뒤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없이 버티기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세계의 문턱을 밟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어느 외국 신문 서울 특파원은 말하기를 '한국 사정을 일어난 대로 기사로 보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독자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것이다. 한국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 즐비하지만 하다. '이게 나라인가?' 문제인 정권 때 국민들이 하던 말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온전히 불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마음이 연약해져서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슬픔, 두려움이 짓누를 때 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5년 5월 19일(월)

4. 사무총회 : 5월 19일(월) 오후 2시 30분

2. 등 록 : 5월 19일(월) 오전 11시부터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3. 개회예배 : 5월 19일(월) 오후 1시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5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영 준